

한기총, WEA 이단성 문제 조사기로

‘2025 한국교회의 밤’ 건은 대표회장에게 위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회는 회원 교단에서 청원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 이첩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한기총은 25일(월) 오전 11시, 제36-4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단성 조사 청원의 건으로 WEA의 이단성에 대해서 회원 교단이 조사를 청원한 건에 대해서 찬성 25명, 반대 5명으로 가결하고 이대위로 이첩했다. S교회 김 OO 목사, GOO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역시 28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하고 이대위로 이첩했다.

2025년도 재정 중간보고의 건으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재정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감사 확인 후 차후 임원회에 감사가 보고하기로 했다.

‘2025 한국교회의 밤’ 관련 진행의 건은 대표회장에게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지



난 2022년 2차 실행위원회에서 이대위로 재이첩 된 전 OO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이대위에서 다시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공동부회장에 이성철 목사를 추가 임명했으며, 회계 박지숙 목사가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여, 교체하기로 하고 추천을 받아 서기원 목사를 회계로 임명하는 것에 찬성 18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결의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다. 영적 자유를 얻은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에는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진실과 투명과 상식과 공정이다. 대표회장으로서 한기총이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앙과 신학의 인격화와 목회현장화 추진

교회갱신협 7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선출

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는 지난 달 18일(월)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 30회 수련회를 개최하고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를 제7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오 목사는 “제 혈관 속에는 교갱협을 설립한 은보 옥한흠 목사의님 주님 사랑과 교회사랑, 영혼사랑이 흐르고 있다”며 “진정한 개혁주의자로서의 신앙과 신학의 인격화와 목회현장화를 추진하고, 종신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일에 전력하며, 건강한 목회자의 표상으로 서도록 하겠다. 더불어 후배 동역자들이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며 지역주의와 금권주의를 깨뜨리고 복음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도록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교갱협은 1996년 3월 7일 은보 옥한흠 목사의 주도로 한국교회의 내적 성장과 외적 개혁을 위해 창립된 목회자 협의체다.

‘목회자 자신의 갱신을 통한 교회의 새

로움’이라는 창립 철학 아래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와 강단 아래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신실한 목회자의 표상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해왔다.

특히 예장 합동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우며, 소속 노회와 총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해왔다.

지난 29년간 교갱협은 교단 내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총회 사람을 실천하며 합동교단의 정체성을 수호해왔다.

올해 제30회 수련회는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시편 85:6)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기연, 광복 80주년 특별기도회

‘참된 해방과 하나님과의 연합’…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 길러야

(사)한국기독교단체인연합(대표회장 현베드로 목사/이하 한기연)은 건국 77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기연 본부에서 특별기도회를 갖고 이 민족을 진리와 자유로 변혁하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날 대표회장 현베드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 8.15 기도회를 맞아 성경적 국가관이 정립되고 이 민족이 진리와 자유로 변혁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제9회 국가오찬기도회도 겸해 열린 이번 기도회는 안산시 단원구 교구협의회 회장 이윤재 목사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최환순 목사의 성경봉독, 소프라노 이영란 교수, 이음선교단의 특별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고문 조종제 목사는 신 24: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출애굽과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라엘 백성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하셨다.”라고 말했다.

특별강연 시간은 한국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가 ‘참된 해방과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개혁포럼 대표회장 허식 목사가 ‘광복절이 가져다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제4회 웨이크신학포럼 및 성경특강

림택권 목사 ‘신학과 삶’ 조명

국제독립교회연합회(대표회장 림택권 목사)와 웨이크신학원이 지난 8월 25일(월) CTS 1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회 웨이크신학포럼 및 성경특강이 ‘림택권 목사 신학과 삶’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림택권 목사의 신학적 기여와 목회적 발자취를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6:25 전경 이후 월남부터 미국 목회, 그리고 신학교육자로서의 삶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교회사와 함께 한 그의 여정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행사는 세 명의 발제자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림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학교 총장, 웨이

크신학원 석좌교수)는 목회자이자 신학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김석주 박사(웨이크신학원)는 서북 기독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또한 최경환 박사(웨이크신학원)의 ‘요한계시록 읽기법’ 특강이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실제적인 성경 학습 방법론을 제시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일웅 박사는 림택권 목사를 “한국교회가 낳은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이자 신학교육자”라고 평가하며, 그의 삶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목회자의 본질을 강조했다.

사)세복협 ‘제25회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

오는 9/11~12, 목포주안교회 및 신안비치호텔서 개최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이사장 이규학 감독, 총재 엄기호 목사, 대표회장 김영신 목사)가 오는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전남 목포 주안교회와 신안비치호텔에서 ‘제25회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목표로 온 몸으로 뛰고 있는 부흥사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영적 재충전을 담당하는 본 부흥성회는 세복협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올해 성회 개최예배에선 총재 엄기호 목사(성령사랑교회)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영력향상 세미나에선 모상련 목사(목포주안교회)가 강연에 나선다. 또한 영력향상 부흥회는 상임부총재 윤보환 감독(영광교회)이 인도하고, 결단의 시간에 이규학 감독(이사장, 인천제일교회 원로)



엄기호 목사

모상련 목사

윤보환 감독

이규학 감독

이 나신다.

사무총장 황연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최대 침체기라 일컫는 올해는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존립을 논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세복협 역시 한국교회 재부흥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갖고 이번 성회를 준비하고 있다. 70~80년대 부흥사들이 중심이 된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

을 오늘날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숙소는 신안비치호텔(2인 1실)에 마련되며, 사전 접수는 1인 5만 원이다. 성회에 대한 전반적인 접수 및 행사 문의는 사무총장 황연식 목사(H.P 010-3262-3004)에게 하면 된다.

‘광복 80주년 기념 축복대성회’ 성황리 개최

한국기독교영풍회, 세종평화의동산서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기념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김순희 목사)는 지난 8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충남 공주시 우성면 소재 세종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에서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및 광복 80주년 기념 축복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성회는 준비위원장 조종환 목사, 진행위원장 송강술 목사, 그리고 김옥순 목사, 김반석 목사, 우사랑 목사 등 위원들의 협력 속에 진행되었다.

첫날 집회에서 증경회장 김용희 목사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창 26:12~13)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영적 거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 △골까지 붙잡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다.

둘째 날 성권상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받는 복’(시 34:3~10)을 주제로,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선포했으며, 셋째 날 오영대 목사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라’(렘 33:3)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과 대한민국, 개인의 역사 모두가 기도의 역사임을 힘주어 전했다.

이외에도 송강술 목사, 이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번 대성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성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김순희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에 다시 성령의바람을 일으키자”는 구호 아래, 영풍회가 한국 강산에 성령의 역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자고 권면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영풍회는 오는 9월 15일 필리핀 앙헬레스 복음화대성회를 시작으로, 10월 20~30일 뉴욕 하크네시아교회 복음화대성회(전광선 목사), 11월 중 남경산기도원 성령충만대성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성애축복식 참여 목회자 ‘정직 1년’ 강력 반발

감리교 동대위, “동성애는 명확한 죄, 파장에 비해 심히 가벼워”

지난해 서울퀴어축제 동성애축복식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감리교 차 OO 목사와 김 OO 목사가 노회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정직 1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이하 동대위)가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동대위는 “그들은 이번 판결이 가혹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 행위의 심각성과 공동체에 미친 파장에 비해 경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행위”라



며 “동성애는 단지 문화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성경이 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교회에서 신앙과 교리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신앙적 본질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판결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된 신앙의 선언이자,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가벼운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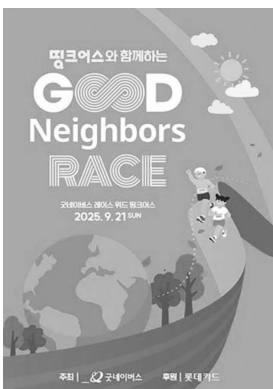
‘굿네이버스 레이스 with 핑크어스’ 개최

일상 속 나눔실천 기부러닝대회, 9/21 잠실한강공원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부 러닝 대회 ‘굿네이버스 레이스 with 핑크어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레이스 with 핑크어스’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와 아동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오프라인과 버추얼 레이스를 병행해 약 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비 전액은 몽골 숲 조성 사업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는 9월 21일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레이스에는 아동 및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5km 걷기 코스와 10km 러닝 코스가 운영된다.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버추얼 레이스는 ‘빅워크(Big Walk)’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걷기 또는 달리기를 진행한 후 앱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신청은 4일부터 ‘굿네이버스 레이스’ 캠페인 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참가비는 오프라인 레이스 3만 원, 버추얼 레이스 2만 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마라톤 키트가 제공된다.

롯데카드는 굿네이버스 레이스 메인 후원사로, 참가비만큼 추가 매칭 기부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한다. 굿네이버스 협력 기업 미스트코리아, LG생활건강, 티젠, 자연드림씨앗재단, 가능바이오 등은 캠페인 참가 물품을 후원하며 캠페인에 힘을 보탠다.

김종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굿네이버스 레이스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되새기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나눔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기후 난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

생명의 말씀

1



최형택 목사

- 교단 전임총무
- 전라지방회 전임지방회장
- 광양은혜와전리교회 담임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사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휴거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말할 수 있다. 취하다, 손에 넣다, 붙잡다, 운반하다, 선택하다, 아내로 삼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랐다. 이는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절대 필요하기에 등장 시켰다.

“믿는 자라고 다 들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마 24장 40~41에서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또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25장에서는 열 처녀 중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에녹과 엘리야의 휴거신앙

(창 5:24)

들어가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에 파묻혔던 한 달란트 가진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에 나누시며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하였다.

누가 들려 올라가고 누가 남겨둠을 당할 것인가?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깨어서 준비해야 할 때이다.

1. 에녹의 신앙

에녹은 65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성령으로 예언적 계시의 이름을 지어주어 낳았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 이름 ‘므두셀라’를 소리 내어 불렀다. 여기에 감추어진 계시의 비밀이 있다. ‘무트’는 죽음을 의미하며 죽은 후에는 홍수의 심판을 보낸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는 낳마다 깨어있어 내 아들이 죽으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외친 것이다.

유다서 14절- 날이면 날마다 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기뻐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낳마다 전했던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신앙을 보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손자인 노아까지 위대한 믿음의 위인을 남겨 놓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은 에녹을, 7절은 노아를 기록하시면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받게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데려가셨을까.

신 29장 20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전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과 하나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선포신앙, 감추어졌던 종말 계시적 신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어찌 사귄 수 있단 말인가? 배도하는 자들과 어찌 가까이 하며 거룩한 성전에 그들과 어깨동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도하며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도 에녹처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과 하나가 된다면 심판받고 불तो에 떨어진다고 외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2. 엘리야의 신앙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근 시나에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자 하나님의 생각을 확실히 깨닫던 엘리야는 단호히 그들을 처단했다. 다른 신들, 즉 이방신들과 연합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토라를 통해 일찍이 훈련 받았던 엘리야였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성령의 회리바람 속으로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어 하늘로 취하셨다.

엘리야가 토라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마음은 민수기 25장에서 나오는 비느하스로 인하여 백성들의 진노가 그치게 한 사건이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그 말씀들을 담아야 한다. 그가 창을 들고 간음하는 장막에 들어가 시므리와 고스비, 남녀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일 때 백성들의 염병이 그치고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

비느하스의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다. 이제 이 언약이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심판을 면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다.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하셨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결합하고 ‘예루사렘’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이다.

3. 마지막 이 세대 휴거신앙

휴거는 내가 올라가고자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비느

하스와 엘리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 곧 질투하시면서 저주와 염병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민수기 25장 3-4절 - 수렴은 영적 지도자들이다. 다른 신들과 연합하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이들은 끊임없이 선포해야 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발람 선지자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우듯 어리석은 것을 하고 있다.

이제 10월이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를 앞두고 대화를 주최하는 교회들은 겉으로는 성경의 무오성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유일한 구원론을 말하지만 실상은 종교다원주의(WCC), (WEA) 등을 옹호하며 성도들에게는 대화를 나눌 뿐이지 그들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속이고 있다. 이 모습이 바로 발람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다. 그들은 그 대화를 통해 그들과 하나 되면서 이것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 둘러댄다. 이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기에 이룬 폐단을 가져온 것이다. 너무나도 쉽게 잘 속는다.

-바로 눈앞이 새 하늘과 새 땅,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천국, 어찌 여기서 음행에 빠지는가? 어찌 여기서 하나님을 배도하며 많은 백성들로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가? 이 시대의 비느하스들이여 주 말씀의 창을 들고 일어나라, 주 말씀 선포하라, 일어나라 비느하스여, 주 위해 싸워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 평화의 언약을 - 외치는 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실 것이다.

동정

거룩한방파제 제7차 출정식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 선포식 및 출정식이 지난 9월 1일(월) 서울 양화진외국인선교사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심하보 목사가 설교했다. 이번 순례는 '많은 분의 핏값으로 지켜진 한국교회! 이제는 우리가 지켜낼 차례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동대 창업 전략 공유의 장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총장) 학생들의 창업 이야기가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패스타'에서 소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전략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한동대는 '청년 인 로컬, 청년과 로컬의 동반성장 구조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소외이웃 위한 특별 공연



국내 최고의 소프라노 김혜영 교수(강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대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특별 공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13일, (사)월드뷰티댄스(회장 최에스터)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이 주최한 나눔 잔치에 재능기부로 함께했다.

성구 새겨진 농구화지증 NBA선수



미국 NBA 선수 조나단 아이작이 성경구절이 새겨진 농구화를 통해 신앙을 고백했다. 해당 농구화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박물관에 공식 전시됐다. 지난 8월 19일, 올랜도 매직 소속 포워드인 아이작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유다 1' 농구화를 성경박물관에서 공개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평화 노력이 ‘삶은 소대가리’와 ‘개꿈’인가?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까지 받았던 대북전단살포는 7월 3일 새 정권에서 금지시켰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누구와 싸워왔는가? 또 통일부는 '통일'을 뺀, '한반도평화부' '남북관계부'등의 명칭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또 지난 6월 11일에는 50여 년간 지속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대통령이 명령하였고, 8월 4일부터는 확성기를 아예 철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그대로 둔 채이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이고, 대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한국의 대통령을 가리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고 가진 말을 하였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는 말로 국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다.

저들은 과거 문제인 정부 때도 대통령이 명령하였고, 8월 4일부터는 확성기를 아예 철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그대로 둔 채이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이고, 대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한국의 대통령을 가리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고 가진 말을 하였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는 말로 국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다.

저들은 과거 문제인 정부 때도 대통령이 명령하였고, 8월 4일부터는 확성기를 아예 철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그대로 둔 채이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이고, 대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말로 모욕을 주었다. 그런데 다시 바뀐 진보 정권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국가라고 인정하기에도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24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2민족·2국가'를 선언하였고, 평화적 통일은 물론,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래서 남북이 그렇게도 노력하여 만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일찌감치 20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었다.

북한이 이처럼 한국 정부의 평화 노력을 거칠고 험한 말로 무시하고,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만든데 도움을 준 것은 지난 정부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준 현금과 현물은 24억 7,065만 달러이다(현재 한화 3조 4,600억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준 것은, 43억 5,632만 달러이다(현재 한화 6조 740억원) 이것이 결국 오늘날 북한의 핵 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했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니, '대남 위협

용이 아니라, 체제 수호용'이라고 옹호하였다. 그리고 핵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설마 같은 민족끼리 핵무기를 사용할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북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80년 전에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과 함재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하여 6.25전쟁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도 이제는 북한 정권의 생각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정부들이 주장했던 통일정책을 따라가거나 답습(踏襲)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보다 냉철하고, 북한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따라오지 않는 건널 수 없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고문



조용묵 목사
(은혜와전리교회)

2025년

부흥사회

일시

2025년 9월 22일(월)~24일(수)

장소

춘천 오순절기도원 (원장:김지훈 목사)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상추곡1길 33

강사

신재영 목사, 정석현 목사
김건수 목사, 안병찬 목사
조선남 목사, 오세준 목사
조은혜 목사

※부흥사들의 성령충만한 영적재무장을 위한 성회 개최

2025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지도고문	전임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전임회장	전임회장	직전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청귤청으로 피어나는 사랑의 나눔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 여성교회가 이웃과 선교지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

여성교회원들은 최근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청귤청 담그기 행사를 열고, 해외 오지 선교지의 어린이들과 제주교도소 내 성경 필사자들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을 모았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5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가며 2.4kg 쫄면 282명의

청귤청을 완성했다.

올해는 감귤나무 해결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 청귤 확보가 쉽지 않았음에도, 회원들은 귀한 열매를 정성껏 준비했다. 특히 올해 수확한 청귤은 향이 진하고 맛이 뛰어나 특별함을 더했다. 여성교회는 “대량 주문 사전 예약으로 낱개 판매는 소량만 가능하지만, 몇 년 전과 동일하게 병당 2만5천 원의 선교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청귤청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선교지 어린이들과 재소자들을 위한 후원에서



용될 예정이다. 단순히 음료 재료를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를 통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한마음교회 여성교회의 손길로 빛 교도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여진 사람의 씨앗이 머나먼 선교지와 제주 위로와 희망의 열매로 맺히기를 기대한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운 목사)는 지난 8월 18일(월) 오전 10시 순복음미향교회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정희 목사(순복음미향교회)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와 통성기도로 시작해, 지방회 총무 김희수 목사(익산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 구봉숙 목사(에덴교회)의 기도과 정성열 목사·소정호 사모(신중교회)의 하모니카 찬양 및 ‘다윗의 춤’ 순서가 있었다.

전임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는 시 121:1~8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무더위와 폭염으로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강조했다. 말씀 후 전임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회장 김상운 목사(익산성광순복음교회)의 인도로 회원점명, 보고 및 안건 토의가 진행됐다. 회무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함께 점심을 나누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 다짐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안종식 목사) 순복음차이로다교회(담임 안병찬 목사)는 지난 7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교회본당에서 장년부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집회는 한국기독교부흥사단 체총연합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피 목사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의 거룩한 헌신을 강조하며,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촉구했다.

둘째 날에는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가 강단에 서서 ‘내 영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강 목사는 개인



의 영적 건강과 회복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짐을 강조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을 하도록 도전했다.

셋째 날 마지막 집회에서는 담임 안병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안 목사는 성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일상 속 삶에서 실천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결단할 것을 권면했다.

이번 3일간의 성회는 말씀과 찬양, 기

도로 충만했으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영적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순복음차이로다교회는 8월 14일(목) 저녁부터 16일(토) 오전까지 소예배실에서 오순절성령비전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참가자 36명, 섬김이 48명, 프로그램 진행 스테프 15명이 함께했다. 캠프장 안병찬 목사의 9차례 강의와 주제별 맞춤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깊이 체험했다.

‘깨어 준비하는 성도, 주의 말씀에 순종’ 강조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8월 18일(월) 순복음새생명교회(담임 이광우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총무 이광우 목사의 사회와 찬양인도로 시작해, 서기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대표기도가 이어졌다. 이어 회계 표현자 목사(시냇가에메스나루교회)가 마 24:32~39 말씀을 본문으로 ‘인자가 임하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표 목사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며,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며, 오늘날 성도들 역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하셨으니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종과 같이 충성되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그는 “노아처럼 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자”고 권하며 설교를 맺었다.

설교 후에는 임경영 목사(하늘빛교회,

부회장)의 중보기도, 이원정 목사(다메섹교회)의 헌금기도가 있었고, 회장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무는 회원점명, 회비 보고, 안건 토의가 진행됐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회원들은 순복음새생명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나누며 교제한 뒤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종연 목사)는 지난 8월 24일(주일) 오후 4시, 선단순복음교회(담임 윤진철 목사)에서 8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와 교단, 지방회 산하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했다.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윤진철 목사의 기도, 재무 이동을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순복음행복한교회 담임 김병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창 3:15 말씀을 본문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님이며,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강조하며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진행된 정기월례회에

서는 지방회장 김종연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며 지방회 지역의 방향을 공유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선단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함께 나누며 친교와 교제를 더욱 돈독히 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2025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http://gd.ucts.org>

2025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2025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단 교역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발표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13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주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엄하석 목사
주성교회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모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의 은혜로운 계절을 맞아,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을
제13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올해 대회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사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국교회와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통해 모든 사모님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더욱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손선희 -

| 일자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2시 ~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 대상 | 교단 산하 전국 교회 목회자 사모

| 후원 및 회비계좌 | 농협 351-1360-4767-73 (김길순, 사모회 재무)

*각 지방회 및 지방회장 사모님들은 매월 1만원(년 1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주세요~

| 문의 |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고문



최해선 사모
기흥순복음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손선희 사모
홍제은혜교회

2025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전임회장



김양숙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전임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전임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전임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전임회장



윤금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전임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전임회장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직전회장



감사 이을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2025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황인경 사모
주성교회

제2부회장



조은숙 사모
경철청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부총무



황복란 사모
사랑의공동체교회

서기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부서기



이재선 사모
주논교회

회계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부회계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재무



김길순 사모
순복음상산교회

제13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일정표

	10월 20일(월)	10월 21일(화)	10월 22일(수)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09:30			찬 양
09:30~10:30		대부도 산책 (바다향기수목원)	폐회예배 직전총회장 김영준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10:30~11:00			정 리
11:00~12:00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등록, 방배정		
15:00~15:30	찬 양	바다체험, 교제	
15:30~16:30	개회예배 총회장 엄하석목사 (주성교회)	전원성전으로 이동	
16:30~17:30	O.T.		
17:3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19:30	찬 양	찬 양	
19:30~21:10	강 의 안병찬목사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간증과 나눔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한기총-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협약

음악 통한 세계 선교에 함께 동반한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와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대표 김혜영)가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한기총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음악을 통한 세계 선교에 함께 동반하기로 했다.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기총과 함께 세계 5대 빈민마을인 필리핀 바세코에서 클래식 선교 음악회를 진행한 바 있다.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김혜영 대표는 “지난 바세코 음악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 시작과 과정, 그 열매가 하나님께 감사하신 아름다운 꿈이었다”라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한기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원들은 자아가 인정하는 최고의 실력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성과 신앙을 두루 갖춘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를 창단했다”라며, “앞으로 한기총과 함께할 사역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선한 일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행치 못할 이유가 없다. 어떤 방해나 반대



있더라도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하면 한기총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함께할 것이다”라며, “이번에 너무도 선한 일을 함께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단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대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필리핀 바세코 선교에 대한 해단식도 함께 거행됐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필리핀 바세코 문주선 선교사는 “이번 선교팀에게는 사랑이 가득했고, 그 사랑이 열정으로 표출됐다. 선교팀이 다녀간 뒤 우리 성도들이

크게 도전받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며, “우리 바세코를 사랑해주고, 성도들을 존중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일, 귀한 선교를 우리 한기총과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가 해주셨다”라고 말했다.

한편,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는 클래식을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국내 최고의 연주가 성악인, 연주자, 무용인으로 구성된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는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쳐왔다.

세기총-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 MOU

목회자 은퇴 컨설팅·개인 재정컨설팅 협력 강화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와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소장 김남순)가 지난 8월 25일(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세기총 본부 회의실에서 소속 목회자들의 건강한 노후와 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회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가 세기총 소속 목회자와 교회를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담임목회자 은퇴 준비 컨설팅 비용을 50% 할인해 제공하며, 개인 재정 컨설팅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

다. 이러한 혜택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기총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가별·지역별 목회자 은퇴 준비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독려하고,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의 교육 및 제반 활동이 진행될 때 소속 목회자들의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소속 목회자들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안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서공회, 르완다에 성경 기증

〈킨야르완다어 성경〉 기증 예식 후원에 동참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가 청주중앙교회(임학용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92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지난 8월 21일 공회 본부에서 가졌다. 청주중앙교회는 설립 79주년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르완다 성경 보내기 후원에 동참하였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청주중앙교회 임학용 목사는 “성경이 없는 이들, 성경 한 권이라도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성경이 전해져 영혼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가 날마다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르완다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다.

르완다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질 때, 공동체에서 나누는 성경 말씀이 빛과 희망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공회 호재민 총무는 “끔찍한 내전을 겪은 르완다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청주중앙교회에서 보내는 성경이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르완다에 성경을 보급하는 청주중앙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나타날 변화를 기대하며 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르완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복잡한 역사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1994년 발생한 종족 간의 갈등인 ‘르완다 대학살’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 전체가 회복을 위해 힘써왔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

또한,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없는 이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일자리 부족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범죄, 중독, 방황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르완다에 전해지는 〈킨야르완다어 성경〉 920부는 역사적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할 것이며, 용서를 통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이 되며, 젊은 세대가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되찾도록 도울 것이다.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 회복을 소망하는 르완다 사람들이 정말 속에서도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살롱나비 /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관하여

이재명 정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이후 조국과 윤미향으로 약칭)을 포함시켰다. 조국 전 대표는 전체 형기의 33%밖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 출소하였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반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1·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후인 작년 12월 16일 수감됐으나, 8개월도 안 돼 풀려나게 됐다. 국민 통합과 '내란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권과 가까웠던 윤건영, 최강욱, 김은경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도 대거 사면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징형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시절인 2011~2020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는데, 광복 80주년을 앞둔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조국과 윤미향은 사면과 복권이 되고부터 바로 정치적 홍보와 발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새 정부가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살롱나비는 큰 우려를 가지고 이번 광복절 사면이 정치적 보은(報恩) 사면으로 법과 정의에 배치(背馳)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훼손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훼손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형기를 1/3밖에 채우지 않은 죄수를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는 것은 법을 농락하는 행위이다. 석방되고 난후 여러 정치적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은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발언을 통하여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더욱 특별히 정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하여 야권과 더불어 좌측에 치우친 정의당 및 일부 시민단체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보은(報恩) 인사로서 정치적 면죄부이자 특혜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태였으며, 광복절이라는 민족의 축제에 정치적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 자체를 부정한 결정이었다.

2. 조국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평등을 훼손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분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조국은 서류 위조와 비롯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의 특혜 입학의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범죄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하게 된 자그마한 범죄에는 관용이 없으면서,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특별 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는 것은 분명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거절한 것이다.

3.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학부모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훼손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히 조국과 윤미향

에 의해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과 일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조국은 입시제도를 어지럽게 했으며, 윤미향은 일제 치하에서 가장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했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학입시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다시금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명예를 더럽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물음에 대답해야 하는 그들이며, 또한 그들이 정치적 계산을 통해 사면되고 정치인으로 복권되어 정치판을 기웃거리려는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다.

4. 사면 결정으로 대통령 취임 후 공공 행진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사면 결정을 통해 가지게 될 정치적 타격과 부담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사면 후 여론조사에 의하면 긍정평가 50.9%, 부정평가 45.6%로, 10.3% 폭락하였다. 그동안의 공공행진에서 가파르게 내려온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과 감정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국의 정치적 발언들, 예를 들어 “2030 남성들이 국우화되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 표출은 자신의 부정한 행위와 불공정한 특별 사면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을 단순히 ‘국우’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짓이었다. 이 모든 정치적 책임은 분명 현 정부와 여권에 있으며,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대학입시를 마음대로 주무른 이들 두둔하고,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준 이들 사면 복권시켜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시키는 이런 정부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특별복권으로 인하여 광복절 사면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훼손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 및 복권을 통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이 훌륭한 제도를 욕되게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별 사면은 지금까지 정치적 의도보다는 국민 통합과 상호 관용을 위해 시행되어 왔다. 특별히 광복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사면 및 복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찢어 놓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마저도 기대하기 못하는 깊은 수렁이 되어버렸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는 앞으로 현역 정치인의 사면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정부는 진보도 혹은 실용도 아닌 무도한 권력 집단에 불과하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행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윤석열 전(前)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부당했다고 해임 결정을 하고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다시 특검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 소모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비판적인 해외 동포들, 시민단체와 야권 성향의 국민들을 무조건 ‘국우’라는 딱지를 붙여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들 가운데 양식을 갖추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양지하고 대통령과 그를 보조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국내의 국민들의 총정서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게 간곡하게 전한다. 법과 원칙이 부정당하는 나라는 결단코 민주주의일 수 없으며, 이는 한심한 독재국가에 불과하다. 또한,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정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방종한 집단에 불과하다. 아직 그 시작이 얼마도 되지 않은 정부가 벌써, 게다가 민족의 영광인 광복절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훼손한다면, 이는 그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이전에 제법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지키고 실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국내 정치의 상황은 국외 외교 문제, 특히 미국과의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동맹의 시한대 첫 허들을 넘겼다. 나라를 위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통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특검 수사에 대해 비난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회담시간도 32분 늦춰지면서 돌발상황 우려가 나왔다. 미국 방문한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외국 정상들

이 묵는 블레어 영빈관에서 머물지 못한 푸대접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의 그의 정치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푸대접은 지난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통하여 감동을 연출한 장면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해외 동포와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받았던 사실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성 약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트럼프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미군기지 압수 수색과 순복음교회 압수 수색에 대한 동맹 훼손과 종교 탄압이라는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8. 한국교회는 정부가 정의를 집행하도록 권면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주권자는 정의와 공의로 그 자리가 견고하며 통치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먹지로 내게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잠 29:4) 조순조가 5백년 지속된 것은 유학이념에 따라서 정의와 인도주의를 따라 통치하는 사회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조의 통일국가를 이룬 진(秦)나라가 오래 갈 수 없었던 것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인간의 서적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땅에 파묻는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는 동서고금을 통해 진시황의 폭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의회권력, 정부 권력을 확보하고 이제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이재명 정권은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섬기는 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멸절과 지식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 28:2). 한국교회는 나라의 죄(사회적 불의와 불공정)를 지적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 격려하여야 한다.

2025년 9월 1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ACSI 교육기관 10주년 맞아 재인증

아신대, 다양한 교육 자격 취득 검증된 기독교교육기관 위상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가 국제적인 기독교 교육기관 인증을 담당하는 ACSI로부터 교육기관 인증을 연장받았다고 학교 측이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아신대는 지난 2014년 국내 대학 최초로 ACSI 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재인증에 성공했다.

학교 측은 “이로써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ACSI는 1978년 설립된 기독교 학교 국제연맹으로,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 기관으로, 현재 29개의 지역 사무소를 통해 100여 개국 2만4천여 회원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

아신대는 “이를 통해 약 550만 명의 학생들이 영적·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 교사 및 행정가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 인증,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등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신대는 “이번 ACSI 재인증을 통해 단순한 교육 품질 검증을 넘어,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선교적 비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ACSI 인증은 선교지에서 대안학교 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으로 활용되며, 졸업생들이 해외 선교 현장에서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신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ACSI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확대 예정

월드비전-LIG, ‘셀프-헬프(Self-help)’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LIG(대표이사 최용준)로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셀프-헬프(Self-help)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LIG는 총 5년 5백만 원의 후원금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2021년부터 5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LIG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누적 후원금 2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번엔 전달된 후원금은 LIG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시작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로, 매년 후원금을 꾸준히 증액해온 결과다. 전달된 기금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가전가구 구입비,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생계와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상품

권이 포함된 선물키트도 함께 제공된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의 길을 걷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5년간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LIG에 감사드리고, 덕분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다”며,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신록의 시선이 이르는 곳”

동터오는 앞산 지평 눈 열어 시선을 마주하니 푸른 숨결 거친 기상이 미명의 어둠을 걷어낸다. 아천상의 고고함이여 영혼의 고향 울려 퍼지는 실존의 향연인가. 벅찬 감각에 못 이겨 힘차게 노래하는 때미들의 합성이어. 아 힘찬 생명의 재탄생 장엄한 천상의 신비 열출비파라.

어둠이여 천상의 찬란한 빛 앞에 굴복하라. 절망의 그림자여 진리 앞에 얼굴을 가리 우리라. 보라 흘러간 세월의 미안일지라도 이제 우리 서로 침묵으로 벗을 삼자. 그리고 후회도 미움도 저 신록의 강가 거룩한 미완의 강물에 흐르게 하자.

그리고 넘쳐흐르는 영혼의 감증을 주의 말씀으로 목을 축이자. 생명강가 넘치는 기쁨을 향해 우리 서로 말씀의 노를 저어가자. 진리로 옷 입고 복음의 감추 삼아 힘차게 전진하자. 아 세월의 신록이여 너의 시선이 이르는 곳을 향하여.

기쁨의 나라, 희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위해 주의 나라와 의가 머무는 곳 영원한 예수 생명을 위해. 한 송이 꽃 예수의 향기를 신록에 담아, 한 송이 꽃 예수의 향기를 신록에 담아, 함께 더불어 복음의 축배를 들자, 함께 더불어 복음의 축배를 들자.

세계로 향한 전도사역은 이번에는 남미를 겨냥하고 있다.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아르헨티나·볼리비아·우루과이·파라과이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초청이 들어왔다.

전도대성회가 잡혀있다. 이 큰 땅덩어리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영접기도를 통한 전도사역을 펼쳐려 한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 여섯 곳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 지난해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일본과 인도를 선교하면서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가족세트전도에서 교회를 3군데 개척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교회 건축하는 선교 헌금을 주님께 서 마련해 주셨다. 이번 남미 선교에도 선교비가 많이 지출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넓은 땅에 가족세트전도의 영접기도를 통한 대성회가 펼쳐지길 기도드린다. 이글을 읽는 여러 분들의 기도와 관심 후원 격려를 부탁드린다.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생명나눔 희망있는 서울광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송고한 가치 함께 나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는 오는 9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생명나눔 희망있는 서울광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과 생명 나눔의 송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서울광장은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부스와 문화공연으로 꾸며진다.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의 간증과 의료진, 종교계, 사회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도

이어져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할 예정이다.

특히 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기증자와 수혜자 가족들에게는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뜻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생명나눔 희망있는 서울광장’ 행사는 전 시민에게 열려 있으며, 현장에서 장기기증 서약 참여도 가능하다.

독거 어르신 위한 ‘사랑의 장수사진 전달식’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통합돌봄사업 전개해 나가

서울 마포구 대흥동종교(교동)협의회(회장 장현일 목사)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전문인 소셜서비스비즈니스(사)월드뷰티앤즈(회장 최 에스더)가 지난 8월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동장 김순영)와 및 대흥동실버리복지동행단과 협력해, ‘돌봄통합사회를 위한 멋진 인생 사랑의 장수사진 전달식’을 20일 대흥동주민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김현지 복지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달식에서 장현일 회장은 “1인가구가 64% 되는 대흥동과의 민관협력으로 독거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장수사진 전달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통합돌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영 대흥동장은 “행복동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대흥동교동협의회장 장현일 목사님과 (사)월드

뷰티앤즈 최에스더 교수님을 통해 우리 어르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장수사진에 담아, 대흥동이 사랑이 넘치는 행복동이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석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르신분들께의 가장 멋진 모습을 장수사진으로 담아 영원히 남기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가시기를 바라며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교동협의회 목사님과 뷰티서비스 교수님 및 봉사자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사진촬영은 김광용 사진작가(월드킵을림픽초대작가), 뷰티서비스는 최에스더 교수(신한대)를 비롯한 뷰티분야 교수들이 맡았다. 전달식에는 대흥동교동협의회 회장 장현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 총무 마지원 목사(새롭교회), 김준희 목사(신촌예배당), 박진웅 목사(뉴라이프교회), 장민욱 사무총장(해돋는마을)이 참석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5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5. 8. 29(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5. 9. 11(목)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5. 9. 25(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5. 8. 29(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 사 고 시 : ① 일시: 2026. 2. 2(월)~3(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 3층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엄하석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자유와 질서



자유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는 증거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항상 절제, 그리고 질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절제와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철로를 벗어나서 달리다가 눈두렁이나 산길에 나뒹구는 기차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제와 질서라는 두 레일 위를 가고 있는 자유라면 안전한 철로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또한 책임이라는 청구서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요즘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며 또한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알아서 남용한다면 그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을 잃게 될 것이며 다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현실 사회에서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때문

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법을 지킴으로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자유인과 종과의 차이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 8:34).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무질서요 불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의 법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온 다거나 어항을 깨면 그 순간부터 자유는 날아가고 마는 것과 같은 위험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질서가 귀함을 다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어느 날의 깨달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신기하게 자꾸만 나의 문제점들을 들춰내신다.

저사람 변하게 해달라 시작한 기도가 어느 날 보니

날 변화 시켜달라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게 만드신다.

우선순위를 절대 범치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저 사람의 변화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우선인 것을 먼저 알게 하신다.

그 일이 있을 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저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진 사실에 감사만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성령님은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홀로 산다면 깨어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

깨어짐의 과정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단시일에 해결된다면 훈련이란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생각을 조금씩 바꾸시는 훈련이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인간관계 훈련은 평생훈련이다.

소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조금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자로써 지금은 66번가 황혼 길에 서있으려니 말씀 부여잡고 온 것 참으로 잘한 것임을 깨닫는다.

매일 넘어지고 이룬 것 없는 것 같은데 말씀 붙잡고 씨름한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예수로 말미암은 흔적은 영원까지 함께 간다.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흔적이다.

내게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신 이 말씀(시 23:3)으로 인해

나는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주님 감사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과 교제한 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 지난날 힘든 시간에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을 묵상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8월 29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엄 하 석
총 무 목사 오 세 준